

충남RHRD심포지엄

# 충남지역 미래인재육성방안

- 일 시 : 2005. 12. 7(수) 14:00~17:30
- 장 소 :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주 관 : 건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 진행 순서 ◆

### 개 회 식 (14:30 ~ 14:45)

---

- 국 민 의 례
- 개 회 정 경 일 건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 인 사 말 씀 김 용 응 충남발전연구원장
- 축 사 김 희 수 건양대학교 총장

### 주제 발표 및 토론 (15:00 ~ 17:20)

---

- 좌 장 정 경 일 건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 제1주제 충남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방안  
발표자 : 황 성 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토론자 : 김 종 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
- 제2주제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  
발표자 : 권 경 주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 박 현 식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 제3주제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  
발표자 : 김 언 주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토론자 : 하 주 현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 종 합 토 론 (17:20 ~ 17:30)

---

# 차 례

## ■ 주제 발표

- 제1주제 : 충남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방안 ..... 3  
황 성 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 제2주제 :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 ..... 7  
권 경 주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3주제 :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 ..... 59  
김 언 주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토론요지

- 제1주제 토론 : 박 현 식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 77
- 제2주제 토론 : 하 주 현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 79
- 제3주제 토론 : 김 종 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 ..... 83

제1주제

충남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방안

황 성 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별도로 인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2주제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

권 경 주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

권 경 주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I. 서 론

새롭게 역사의 문을 연 21세기는 격동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모두의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다. 정치·경제적 변화는 물론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풍요 속의 빈곤과 인간 소외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각종 사회문제들이 공동체의 통합과 인간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분위기는 장차 새로운 시대를 뚫어지고 나아갈 차세대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나갈 기회와 환경적 조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올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다음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가능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의 역사 속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다음 세대들인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청소년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이어갈 사회적 힘의 원천이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사회이며 정보화 사회이다. 사회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국가영역을 넘어 지구촌 전체를 하나로 보는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며 서로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이는 평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문명된 인간중심 사회를 꿈꾸어 온 우리에게 큰 혼란과 함께 도전이 되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양성과 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들은 전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계발하는 일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일이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들은 지역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지도자의 리더십 제고를 위해 그들 스스로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의 틀 속에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본다.

## II. 청소년의 나아갈 방향

### 1. 청소년 인성교육의 강화

디지털 혁명의 물결을 타고 성장한 오늘의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 접하는 가상공간이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하여 친구를 사귀고 또래집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그 영역 또한 광범위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관계는 통신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계적 한계와 익명성 때문에 관계설정 자체가 비인간적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격형성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과 인간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 즉,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한 인간의 고립화와 비인간화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청소년활동은 인간성 회복과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임을 느끼게 된다.



이에 인간미가 넘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청소년 공동체나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인간의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자연권 수련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활용방법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디지털 혁명이 가져준 기술을 청소년활동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청소년 정보화 마인드 함양

청소년들을 지식정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보추구능력의 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한 정보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컴퓨터를 다루는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함양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자기개발과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방법을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필요한 지식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뒤져있는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청소년의 단체활동 강화

사회가 다양화되고 청소년들의 개성이 뚜렷해지면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이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의 물량위주의 획일적인 활동은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참여 동기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없다. 그 동안 정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들은 청소년 1인1단체 가입운동과 청소년단체 활동 전문화 육성사업을 위한 노력과 지원으로 많

은 발전을 보긴 했지만 아직까지 청소년단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프로그램에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별다른 특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활동을 테마별 그리고 청소년 개개인의 개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단위별 활동의 개발과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각 청소년활동의 목적이 타당하고 이념의 정립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활동 참여에 대한 정체성 확립의 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활동을 내실화하고 기존의 조직과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지적수준과 역량에 맞는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특히 취미특기 관련활동)위주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의 회원과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고 단체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현재 기능장 제도 등으로 개설되어 있는 각종 기능 활동을 내실화하여 단체가입 청소년들이 최소한 1인 1특기 내지는 1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나 생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수집과 같은 조사연구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에서 언급한 단체별 전문성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은 활성화되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지역중심의 청소년활동 전개

오늘날까지 청소년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안정적인 청소년활동을 유지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의 한 방법으로 학교현장과 함께 지역중심의 청소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생활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교육개혁 추진의 일환으로써 특별활동 및 체험학습 위주의 현장체험 교육이 강화되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시간

활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활동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며 프로그램 또한 매우 빈약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활동이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경우 청소년활동은 단지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단합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전략을 펼쳐 나가야 한다. 학교와 부모 및 사회의 종합적인 협조와 조력 없이는 지역중심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어려우며, 활동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의 학교, 교육청, 공공기관 및 단체, 학원, 사설기관 등의 물적 자원과 전문적 기능을 가진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일반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단체와 사회가 유기적 협력하는 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이 절실하다. 한 예로써 사회의 축제를 청소년활동의 일환으로 공동개최 한다든지 사회의 이익을 위한 여론형성과정에 청소년활동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해 나가고 각계의 전문가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청소년활동의 주체 세력으로 흡수함으로써 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5.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참여 확대

참여란 자신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의사결정 집단적 과정에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이다. 예컨대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결정과정, 사회의 각종 결정, 학교 혹은 가정의 여러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다. 스스로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참여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

을 수 있다. 하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어른들이 하되 다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충분히 밝히는 기회가 제공하는 형태의 참여이다. 다른 하나는 단순히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만을 밝히는 데 머물지 않고 의사결정과정, 즉 투표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참여이다. 두 가지 형태의 참여 중 어느 형태의 참여가 바람직한가는 결정해야 할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 반드시 어느 형태의 참여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다.

청소년에 관련된 최근의 세계적 동향으로 주목할 것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 국제회의에서 청소년 참여가 주요 테마로 논의된 바 있으며, 또한 주요 국제회의에서는 각국의 청소년 대표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진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청소년육성의 주된 방향을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청소년 개발에 두고 있음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청소년은 이제 더 이상 어른이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성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책임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류 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위상이 새롭게 변모해 가고 있다.

### III. 청소년 복지와 지역사회

#### 1. 청소년의 개념정의

##### 1) 일반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로 아동이 성인으로 변해가는 중간에 놓여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취학 이전의 연령층을 유아기, 초등학교 취학기간을 아동기, 중·고등학교 취학기를 청소년

년기, 대학생이 되면 청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 취 학 전 : 유아기 6세 미만
- 초 등 학 교 : 아동기 6세~12세 미만
- 중 · 고등학교 : 청소년기 12세~18 전후
- 대 학 이 상 : 청년, 청소년후기 20세 이상

청소년을 성년으로 변하는 기간 중의 사람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대학의 초년생까지 해당되며 연령별로는 10세에서부터 20세 전후까지를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이 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그것은 사람의 성장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같은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성장의 속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특징에 따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아동이 성장을 하며, 이후에는 성인이 된다는 것이며 그 과정을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이론이 다양하여 그에 따른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개념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다양하여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오다가 1987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과 1991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정리가 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상한을 18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14세까지를 미성년으로 보고 있고, 민법에서의 성년기준은 20세(2004년 7월 현재 19세로 입법예고)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용에는 일반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기준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사회적 · 정책적 고려와 청소년의 성장발달, 교육적 측면 등이 고려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업의 과정에 있는 학업청소년이고 사회의 청소년단체들이 청소년회원으로 인정하는 연령이 9세부터이어서 이

를 하한연령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상한연령도 우리나라의 주요법률에서는 성년을 만20세(민법 제4조)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 따른 지위의 인정여부는 20세 임에도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의 상한연령을 24세 이후로 보고 있으며 UN에서도 24세로 보고 있다. 24세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마치는 졸업반이거나 졸업생시기이며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시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독립적 지위를 가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외에도 다른 많은 법규에서 연소자보호지원을 위한 특별규정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서는 17세(주민등록법 제17조)를 주민등록 발급기준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연령을 명시하지 않고 청소년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헌법(헌법32조)과 영화법(영화법 시행령 19조)에서의 연소자, 공중위생법(공중위생법 제39조)의 어린이,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9조)의 학생 도로교통법 제17조의 유아, 모자보건법 제7조의 영·유아 등 많은 사례를 들 수가 있다. 청년에 해당하는 호칭과 연령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으로는 민법 제4조와 제5조의 미성년(20세 미만), 아동복지법 제2조의 아동(18세 미만), 소년법 제2조의 소년(20세 미만)등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기준을 성년이라는 의미로 보아 적용되는 현실적인 사회생활상의 편의들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규정을 통해 대개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성인으로서 인정되는 각종의 제도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하고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극장출입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의 자원봉사도 가능하며 혼인도 가능해지는 등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성인 대우를 하게 된다. 19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술, 담배의 구입도 가능하고 비디오방의 출입 등 성인자격이 주어진다. 20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고 신용카드의 발급도 가능하며 휴대폰의 계약 등도 가능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민법상의 성년을 19세로 개정하게 되는 경우는 이 기준들이 약간씩 바뀌게 될 것이다.

## 2) 농어촌청소년의 정의

농어촌청소년이란 청소년 중에서도 농어촌에 살고 있는 청소년으로 도시와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구분과 농어업이라는 산업적 특성을 감안한 영농후계자 연령층의 의미가 실려 있다. 이론적으로 농어촌청소년은 인구 5만명 미만의 군부지역에 살고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농통합시의 경우 농어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인구통계나 가구통계 등 공식적인 관련통계에서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농어촌청소년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의 이론에 따라 다르며 이를 정의 하려는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해석을 갖고 있으므로 쉽지 않다. 그러나 농어업의 특성을 감안하는 영농후계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연령층(30대까지)은 필요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어촌 청소년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5만명 미만의 군 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10세 전후에서 24세 전후까지의 남녀로 정의 할 수 있다.

## 3) 농어촌청소년의 특성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농어촌청소년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자아관, 가치 갈등, 진로 의식에 대해 (한국청소년학회,1994)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할 때 농업, 농촌, 농사일, 농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농촌청소년들의 태도나 가치관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초에서 1999년대의 조사에 이르기까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육체노동이 힘들기 때문

에 싫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도시 생활에 비하여 농촌생활이 편리하지 못한 점, 직업의 기회가 적은 점 등도 중요한 요인을 지적되고 있다. 영농후계자 역시 책임의식이 낮아서 한국 농촌의 미래를 위하여 우려되는 바가 많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연구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학력, 부모의 교육이나 경제적 수준, 거주지의 위치 등과 의식구조와의 관계이다. 농촌청소년 자신의 학력이나 부모의 학력이 낮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고 도시와 멀리 떨어진 오지에 살고 있는 농촌청소년들이 농업이나 농사일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에 학력이 높거나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청소년, 도시 근교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농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말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어떤 사람이 농촌에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려되는 바가 많으며,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

## (2) 자아관

농어촌청소년들은 도시청소년들에 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구결과들은 요약하고 있다. 그들은 열등감과 부정적 자아관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도시청소년들에 비하여 자신들이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독특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소외감, 심리적 갈등도 부정적 자아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농촌청소년들이 부정적 자아상을 갖는 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도시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고, 현대적 편의시설이 빈약하며,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 많은 농촌청년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고 그들이 도시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을 때 농촌에 남아 있는 청소년들은 일종의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남아있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달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 (3) 가치갈등

가치갈등은 오늘날 농촌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농어촌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더 심한 가치 갈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이들의 가치갈등은 전통적인 규범과 근대적인 규범, 유교적인 규범과 산업사회의 규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국가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한국적인가치와 서양적인가치의 사이에서 도시청소년들보다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은 한 개인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가치관 사이에서 겪는 경우도 있고, 한 집단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가치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의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 개인이 앞의 질문에서는 '결혼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표현했다가 곧 이어 나온 뒤의 질문에서는 '결혼할 배우자는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현대적 가치관을 나타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 한 집단 안에서 일부의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집착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의 청소년들은 근대적인 가치관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의 비율이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집단 내에서의 가치갈등의 실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청소년들이 가치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은 농촌이 도시보다 전통적인 요소가 더 강하고, 가정생활에서도 가부장제와 권위주의 등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으나 도시와 대중매체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의식은 근대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화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도시의 생활에 익명성을 가지고 원자적으로 독립해서 사는 경향이 강한 데에 비하여 농촌에서는 친족, 이웃에 관한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 (4) 진로의식

농어촌청소년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기 자신만이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것에 관한 진로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업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농업보다는 비농업에 대한 희망이 많고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는 청소년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이 아닌 직업의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관리나 의사 등의 직업보다는 최근에는 기술자를 직업으로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기 자신의 진로를 확고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하고 불확실한 태도, 부정적인 자아감을 함께 고려할 때 농촌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이나 농촌에서의 생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 농촌청소년들의 이러한 불확실한 진로의식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2. 청소년 복지정책

### 1) 청소년복지 지원제도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이어서 1991년 이 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발전적으로 개정된 이후 거의 10년 넘게 청소년육성 부문은 청소년기본

법을 골격으로 하여 그 근간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2차 청소년육성 5개년 발전계획의 실천과 수립,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청소년헌장의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육성이 갖는 기본적인 이념이 새로운 사회 환경을 맞으면서 함께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관련 주체들의 당연한 권한과 의무만을 선언적 규정하는 내용과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2003년 중반에 청소년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청소년기관·단체 합동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 뒤 법률 개정/제정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2003. 12. 30 국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청소년기본법(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제정), 청소년복지지원법(제정) 등, 소위 청소년관련 3개 법안을 확정 짓게 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총 6개의 장과 21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6개의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인권 보장 및 복지향상,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4장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 제5장 교육적 선도, 제6장 별칙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을 법률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표현된 점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창업·의료지원, 직업능력강화와 상담·수련·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보장 및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할인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시키려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점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갖는 또 다른 의의라 하겠다.

## 2) 청소년위원회의 발족

1998년 이후부터 지난 2005년 4월까지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중앙 단위의 기구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당시 청소년정책실)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과 혼선, 정책의 중복과 누락 등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각 부처가 분산 담당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정책의 특성은 통합기능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의 수행이 매우 부족하였고, 각 부처와 연계하거나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이 매우 어려웠다.

2004년 12월 1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그동안 가족·청소년기능조정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을 발표하면서 청소년조직은 통합·일원화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법률안 통과 이후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조직 검토 작업이 행정자치부와 있었고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이 2005년 4월 27일 최종 공포됨으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청소년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직원(33명)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원(55명)이 그대로 청소년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되었고 부족한 인력은 외부에서 채용하거나 타 부처로부터 전입을 받아 충원하였다.

## 3) 청소년정책의 방향

### (1)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부처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본다. 청소년정책은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조기 체계상 각 부처가 분산 담당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각 부처가 정책적으로 연계되기 힘든 원칙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

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 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 시 각 부처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부처간 정책협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중앙·지방간, 청소년단체·시설 간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은 주로 단편적으로 추진되었거나 단위산업 위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이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1회성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거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사업에 대한 효과도 미흡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기관·단체·시설 간 정책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통합·연계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이 청소년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하여 지역단위 정책을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시범지역 정책도 특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 정책평가기능 강화를 통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은 확장 위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왔다고 본다.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지는 않는 대신 기존 사업들을 답습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또 추진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던 시기와는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매우 저조한 사업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의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사업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이나 사업 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하고 새로운 환경변

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획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 정책도 과감하게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도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민간 및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정책 추진**

앞으로 정부기능은 상당부분까지 시민단체 등 NGO의 역할로 대체될 것으로 본다. 특히 청소년정책은 정부의 공권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추진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밑바탕으로서 시민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적은 재원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본다.

#### **(5) 청소년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의 통합적 연계 추진**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물론 정책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어느 정도 구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구분의 이익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정책이 상호 보완적이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통합적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청소년육성대상과 청소년보호대상은 통합하여 적절한 명칭의 청소년을 위한 대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현재 청소년위원회의 조직도 청소년정책단, 활동복지단, 청소년보호단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기능이 통합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6) 지자체 보조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마련

현재 중앙의 국고보조금은 사업별로 지원되고 있고, 집행도 보조된 사업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분야의 사업을 통합하여 대분류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은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의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비 예산의 절감은 물론 이 부분에 남은 예산을 다른 부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 4) 청소년위원회의 새로운 정책과제

### (1)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2005년 5월 2일 청소년위원회의 개칭행사시 발표한 새로운 청소년정책과제의 브랜드는 청소년의 푸른 성장으로 잡았고, 이는 '진실', '정신적 성장', '자기탐구', '내적성장', '새로운 나', '희망', '자립'등을 의미하며, 청소년 존재 자체의 젊은 색상 이미지를 상징하고, 시각적인 이미지는 '엄숙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푸른 성장을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푸른 성장」의 브랜드는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과 '현장정책'을 지향하며, 청소년의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문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간다는 정책방향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감소시키고, 문제를 예방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참여와 기회를 확산해 가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정책전략으로서 사명은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 부모와 함께 합니다.”와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과 함께 꿈과 희망,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갑니다”로 하였고 추진전략으로는 씨줄(과제를 가로지르는 프로젝트형 접근)과 날줄(정책과제별 접근)의 「그물형 정책」과

들숨(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지원받고 학습·습득하는 기회)과 날숨(청소년이 기량과 자원을 활용한 사회 참여와 기여)의 「호흡형 정책」을 통하여 세대 분리적 정책 접근에서 「세대 통합형 정책」으로 전환해 가도록 하였다.

## **(2) 4대 핵심 추진 과제**

4대 핵심 추진 과제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청소년의 참여와 인권을 증진하는 바탕 하에, 이를 가로질러 오후 3시부터 밤10시까지 방과 후 시간을 중점 지원하는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 **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 보장**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학교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활동기회를 마련하며, 학원·과외 위주의 청소년 생활패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활동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기회를 부여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활동기록의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록관리 유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I 정책” 즉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락처, 인센티브를 적극 강화하며, 청소년의 최소한의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청소년활동 최소이수 시간제」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였다.

### **②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은 위기가능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자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위기청소년의 자기 계발과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진입·이행을 지원하며, 보호지원 기관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의 생활과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필요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생활지원시설은 시도별 3개소 이상, 중기 자활지원 시설은 시·도별 1개소 이상씩 확충하며, 위기청소년과 이를 지원하는 시·군·구와, 의료나 학원, 직업훈련,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생활복지 바우처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위기청소년과 1대1 또는 2-3대1로 매칭·지원하는 멘토 시스템과,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복지벤처사업으로 육성하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은 청소년위원회가 총괄하고, 시·도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위기가능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에게 상담·정서지지, 보호,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보건·의료, 여가·문화, 교정 및 선도, 법률 및 권리구제를 하여, 가정과 학교로 복귀시키고 사회에 적응시켜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③ 청소년의 참여·인권 증진

청소년의 참여·인권 증진과제는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와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청소년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서 타율에서 자율로, 암기에서 창의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을 통해 이념을 창출하고, 이념을 생활화하여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청소년의 참여·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강화, 지방 의회 내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권장, 청소년 참여의 내실화 실질적 정책반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청소년 인권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 인권 관련 국민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 ④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방과 후 나 홀로 있는 청소년의 비행·범죄 노출과 학습부진을 방지하고, 방과 후 다양한 활동기회를 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의 중심이 되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자녀 양육의 기능을 가정과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돌봄 기능에서 미래 준비로 다시 참여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방과 후 공적서비스의 부재는 사적 부담을 가중시켜 여성의 취업제약으로, 공교육 약화는 사교육 번성으로, 비행·일탈·범죄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고 있다.

현재 방과 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나 홀로 청소년의 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36.3%에 이르고,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추세에 비례하여 더욱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한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월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의 52.1%가 활동이 전무하며, 주 5일 수업제 전면 도입 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방과 후 아카데미는 현재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방과 후 공적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인 10% 수준으로 향상하며,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적 확대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20% 수준까지 감소시키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습보완 등 다양한 통합적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방과 후 아카데미의 구체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청소년수련관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이용시설, 근로청소년시설, 시민회관 등 지역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단체 시설, 청소년 공부방, 종교기관, 학교·대안 교육시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3. 청소년과 지역사회

#### 1) 청소년과 지역사회간의 상호관계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 청소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능은 인간형성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동안 모든 실제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의 장이다. 특히, 지역사회는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공동생활의 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그 사회의 가치관, 습관, 신념, 태도, 행동 등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가르쳐 주어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는 삶의 터전이자 생활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성장 발달하는 데 필요한 여러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항상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의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강인한 추진력으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틀에 박힌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와 계획을 세우며 야망을 펼치고자 노력한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심장으로서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능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영속과 발전을 위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비중은 상당히 커서 이들의 능력을 키워 지역지도자로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2)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인간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장발달을 규제하여 그들의 인성을 결정한다. 특히,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지역사회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여부는 그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하도록 하느냐는 문제와 직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하고 모범적인 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유익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며, 이는 바로 지역사회 전체의 의무이자 책임이 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매일 같이 선정적이고 부도덕한 내용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불량도서와 음란의 설물,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성인 영화와 만화, 음란비디오테이프 등 청소년들의 도덕적 품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와 각종 인쇄물 등이 청소년주위에 범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홍행장, 유기장, 사행장 등 유해업소의 출입을 묵인하거나 조장하고 청소년들을 학대하거나 배후에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가 성인들에 의하여 서슴없이 자행되면서 청소년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거나 비행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해로운 환경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아무리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육성사업은 지역사회나 시민의 참여 없이는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사회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는 청소년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충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와 장소를 충분히 제공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은 크게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물적 자원으로는 지역적 위치, 자연, 역사, 산업, 교통통신, 사회제도 및 기관, 시설 및 설비, 관련 자료와 정보 등 자연적인 자원을 비롯하여 사회 문화적인 자원이 다 포함되고 있다. 인적 자원으로는 행정인, 정당인, 교육자, 문화에

술인, 군인, 종교인, 우편배달원, 공원관리인 등 연령이나 지위 등 사회적 배경에 구애 없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역주민이 다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자원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흥미,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때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 3)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활의 기반인 지역사회와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며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전격적으로 격리된 상황에서는 올바른 성장발달을 이룰 수가 없다. 청소년들이 자신이나 남을 위하여 책임 있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실행하여 보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사회적 소외감과 무력감속에서 독립심이 강하고 책임 있는 건전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하나의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생활 경험을 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생활방식과 생활태도를 습득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청소년들은 지역사회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신들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깨닫고 지역사회의 제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지역사회의 유형과 성격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활동 역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청소년들을 그 지역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효과적인 일들은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조사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사회조사는 지역사회의 인구, 자원, 사회 조직과 구조, 발전과정, 지역주

민의 의식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당면문제 등을 직접 답사하고 견학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 및 미화작업, 위문활동, 모금활동, 계몽활동, 재해구호 및 복구활동 등 지역사회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협력하고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직접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지역사회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문제를 직접 발견하여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능력과 자세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지역사회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일체감과 함께 자신감과 희망, 협동심, 개척정신 등을 길러 줌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이바지 한다.

여기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전문화된 양성과정 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2005년 현재 16개 대학(2개 전문대학 과정 포함)에서 2년제 과정과 학부 및 석·박사과정 등의 특화된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곧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육성의 독립적 제도화와 함께 청소년지도자의 전문화의 정도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비제도적 통로를 통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의 내용은 주로 표준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과목을 기본적인 준거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과목은 크게 청소년육성과 지도를 위한 공통필수영역으로 청소년이해(청소년 심리와 문화), 복지·행정(청소년복지와 육성법규와 행정), 활동·지도(청소년수련활동과 지도방법론) 분야를 비롯하여 공통선택영역(청소년정책론, 문제, 상담, 교류, 환경 및 프로그램개발과 평가)과 전문적이고 실용적이고 기량 중심의 전문선택영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과 품성을 지니고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 IV.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방안

### 1.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도자의 능력조건

#### 1) 청년지도자의 개념

오늘날 정보화의 진전이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지식과 정보가 시·공간적인 제약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성격으로 전환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많은 종류의 정보가 폭증하게 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의 속성에 의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정보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정보의 생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개인에게 평생에 걸쳐 요구된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자기 교육능력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는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방적 교육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식사회를 선도할 청년지도자들은 창조적 지식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식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지역주민에 전파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지식사회와 지도자의 개념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혁신하는 사람

↑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노하우 즉, 방법지(方法知)를 체득하고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 과정에 필요한 마인드(정신자세), 습관, 능력을 갖춰 부가가치를 높여 가는 사람
---

21세기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 지식기반의 창도자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노하우 즉, 방법지(方法知)를 체득하고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 과정에 필요한 마인드(정신자세), 습관, 능력을 갖추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 2) 청년지도자의 조건

이런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는 성장하는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기본소양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국가차원의 청소년단체 활동, 수련활동, 상담 등 청소년 활동 전반에 걸친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청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해서 다음 조건의 능력배양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문광부:1999).

### <표 2> 청년지도자의 능력개발요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고, 그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Mind-set), 생활습관(Habit-set), 기본능력(Skill-set)을 도야하여 미래의 가치창조와 자아실현을 준비하는 청소년

- 자기만의 독특한 영역을 개발하는 청소년
- 자신의 영역에 실험적인 도적은 계속하는 청소년
- 주위의 압력, 비판을 견디어 낼 수 있는 곳곳한 청소년
- 자신의 영역에 대한 정보력을 갖추어 가는 청소년

청년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 능력과 적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자신만의 재능으로 극대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의 도야를 통해 미래사회의 가치와 자기실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능력으로서 자신의 삶의 목표 탐색과 설정, 필요한 정보의 선택과 가공·활용 능력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관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능력을 뒷받침하는 기본소양으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



고를 통한 자기 신뢰와 정체성의 확립,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성과 창의적 발상 및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열정을 가지는 한편 자기 이해와 관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로의 강인한 실험적 도전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지도자의 필수적 조건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윤은기,1999:7).

첫째,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대하는 정보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지능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 조절 할 수 있고 항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실용적 지식을 개발 공유 할 수 있는 ‘감성지능, 창의적 지능, 실천적 지능과 같은 신지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특성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핵심역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혼자서도 잘 하지만, 함께 하면 더 잘하는, 다른 사람과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팀웍’으로서 관계의 형성과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넷째, 일과 체험을 자기실현의 장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창의적 성과는 열정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무리 기본소양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신뢰와 윤리성이 결여된 능력은 무의미한 것이다. 정보수집과 가공공유를 위한 관계의 형성은 ‘신뢰와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 2. 청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

### 1)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청소년단체라 하면 학교 안에서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원제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여 특별활동시간에 활동하는 단체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청소년을 직접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

고 있으며, 설립 목적, 배경 및 주요 사업 등을 청소년활동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특히 이들은 학교 안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적십자, 한국해양소년단, 한국우주정보소년단 등이 이에 해당된다(공식적조직 중심 단체).

### <표 3> 청년지도자의 특성과 필수적 조건

※ 청년지도자의 특성:

#### 1) 마음가짐(Mind set)

- 긍정적, 적극적 사고 → 자기 확신감, 자기 효능감
-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 자기 개방성, 창의적 발상
-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순수한 열정

#### 2) 생활습관(Habit set)

- 자신에게 충실한 삶의 방식 : 개별화 → 자기 내성
- 철저한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
- 끊임없는 탐색적, 도전적, 실험적 행동 → 강인성, 유연성

#### 3) 기본능력(Skill set)

- 자기 결단력, 자기 선택력 : 목표탐색 및 설정
- 관련정보의 수집과 가공, 생성 능력
- 주변자원의 활용능력 및 관계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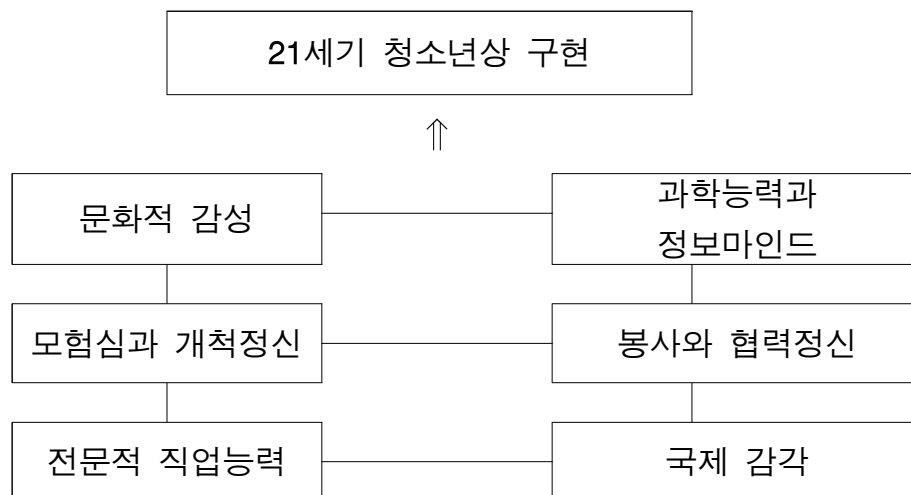
신지능 함양	핵심역량 준비	팀워크	열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성지능</li> <li>· 창의적 지능</li> <li>· 실천적 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li> <li>· 잠재력 능력 개발</li> <li>· 정보수집 활용 능력배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관계능력</li> <li>· 공생공존의 방법체득</li> <li>· 시너지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 적극적 사고</li> <li>· 마음의 에너지 활용</li> </ul>
도 덕 성			

이들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을 때 학교교육(형식육성(Formal Education)의 보완적인 기능(비형식 교육 Non-formal Education)을 수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국제적이고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청소년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전통적인 청소년단체활동은 차츰 초등학교 위주의 활동으로 전락하고, 중·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관심 영역이 옮겨가게 되었다. 학교 특별활동 시간(CA)을 중심으로 4-H활동, 중학Y·고교Y활동, 전국 YWCA 연합회 등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동아리가 확대(잠재적 조직 중심 단체)되고, 청소년 스스로 학교 안에서 방송이나 합창 등의 전통적인 동아리와 더불어 춤이나 영상 등의 전문적인 동아리들이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청소년단체들은 중·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수준의 조직으로 전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공식적인 청소년단체가 제도적인 지원 아래 성장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이양하는데 필요한 체험활동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넘쳐나는 사회적 힘의 창조적 발휘나 파괴적 행사 여부를 좌우하는 한 변인으로 체험 여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청소년 중에서 생활체험, 자연체험, 일상체험 등 체험 기회가 많이 가진 아이들일수록 도덕성과 정의감이 더욱 높아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역할수행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2005년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서 매월 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단체와 민간기업, 학원, 이벤트업체 등에서 토요일무일을 대비한 프로그램을 쏟아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 청소년의 욕구에 근거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능력개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1년 또는 3년 단위의 패키지(Package)의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협력조정(coordinating) 기능을 결합하여 청소년 단체의 고유 목적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제는 저가의 프로그램에 대단위로 참가하는 형태의 활동프로그램에서 지역 별 특성과 청소년들의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능력개발 형태의 단체 활동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 문화관광부(2004)

<그림 1> 청소년 수련거리 지표

## 2) 수련인증제도의 도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법령에 근거한 인증절차를 통해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증 및 활동결과 기록·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춰 운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전인발달을 지원하고 조력해주는 청소년수련활동의 관리체계 및 청소년활동정보의 상시적인 제공도 가능케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지도자들의 전인교육양성의 한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표 4> 21세기 청소년상의 영역별 수련거리(93종) 구분**

21세기 청소년상	활동영역	활 동 소 개
문화적 감상	문화감성 활 동	문화권탐방활동, 예술감상활동, 명절쇠기활동, 국토탐사활동, 민속놀이활동, 노래광장활동, 놀이한마당활동, 전통문화사랑방활동(우리 노래, 춤, 악기, 극 , 풍속활동), 신토불이상차림활동, 역사연극활동, 역사인물기행활동, 역사읽기운동, 박물관기행활동, 선현답사활동, 전통예술창조활동, 취미생활활동, 문예사랑활동, 영상매체이해활동, 만화이해활동, 어울마당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24가지 활동, 전설의 고향활동, 하나되는 몸짓활동, 전통축제한마당, 영상음악, 어울춤, 철학기행(31종)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과학정보 활 동	독서교실활동, 환경캠프활동, 장영실의하루활동, 자기표현활동, 컴퓨터와의만남활동, 지구촌시대를여는정보통신활동, 정보캠프활동, 창작마당활동, 과학놀이활동(9종)
봉 사 와 협력정신	사회봉사 활 동	도시농촌교환봉사활동, 모의지방의회활동, 지역사회명사만남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장애청소년스포츠활동, 화목한가정꾸미기활동, 이웃돕기한마당활동, 지역사회공개토론활동, 환경살리기운동, 우리는환경을지키는녹색파수꾼활동, 함께하는 지역공동체활동, 가족유대감강화활동, 한마음한가족(13종)
모 험 과 개척정신	모험개척 활 동	바들산체험활동, 안전사고대비훈련활동, 호연훈련활동, 자연농장활동, 수상훈련활동, 신바람풍물체조활동, 모바심활동, 대한군인활동, 백두에서한라까지의활동, 비만예방활동, 한국의강탐사활동, 국토사랑배낭여행활동, 모험체험활동, 산들탐사활동, 미지의세계활동(15종)
전 문 적 직업능력	자기계발 활 동	부모와함께하는역할놀이활동, 모의법정활동, 정신건강활동, 가치관정립활동, 바른시민생활활동, 동방예의지국활동, 진로탐색활동, 집단속의나활동,물자절약운동활동, 생활법률이해활동, 암행어사출두여활동, 공양미삼백석활동, 민음의유산활동, 남이되어보기캠프활동(14종)
국제 감각	국제교류 활 동	국산품애용활동, 청소년국제교류활동, 국제교류준비활동, 세계문화비교체험활동, 나라사랑체험활동, 외국문화이해활동, 통일광장활동, 온누리로향한배달의얼활동(8종)
기 타	다 영 역 활 동	수련거리운영지침, 출발우리는새내기, 우리들세상여기는청소년마을(3종)
		총계 (93종)

청소년단체활동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변화를 위한 기폭제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단체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자기 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활동인증제로 청소년에게는 양질의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통해 청소년들을 새로운 가치창조와 자아실현을 위한 자발적 선택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단체들은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적 시민운동단체등과 협력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간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서비스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실현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단체는 단순히 활동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하는 인증대상이 아니라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해 지역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할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야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 3. 청소년참여를 통한 능력증진방안

#### 1) 청소년참여의 효과

청소년참여가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정보효과, 유인효과, 자기교육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박세일:2003)

첫째, 정보효과의 문제이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기쁨과 고뇌 그리고 그들의 지성과 감성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그들의 의견을 사전에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참여 없는 결정, 즉, 소외된 결정은 정보부족의 결정이 되어서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유인효과의 문제이다. 참여 있는 결정일 때 비로소 그 결정에 대한

자발적 이행과 협조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그 결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고 정책실패가 그 만큼 적어진다.

셋째, 의사결정에서의 참여가 자기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를 통하여 다른 견해와 다른 시각을 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청소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보다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각이나 견해를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보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 소위 교육효과의 문제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체가 자신의 견해의 상대화과정을 통하여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청소년참여는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동시에 청소년참여를 통해 유발되는 간접적인 교육효과에 의해 반드시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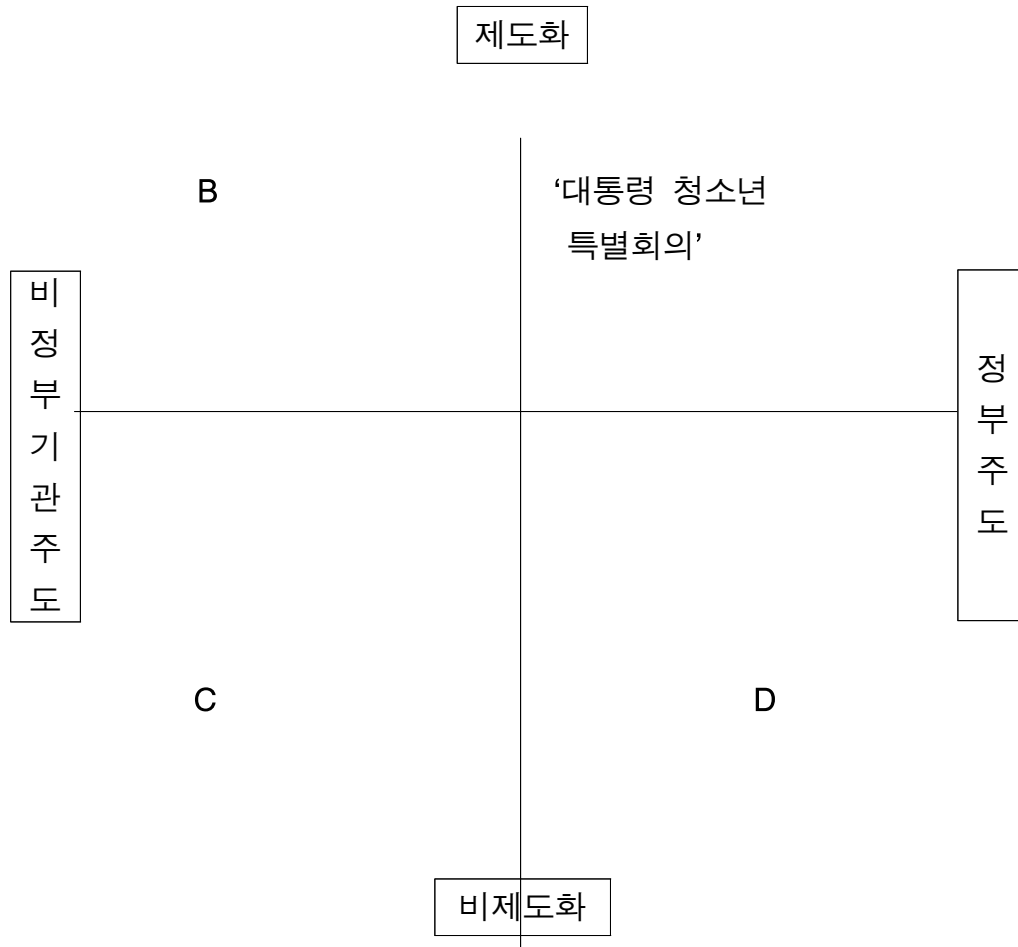
## 2) 청소년참여의 형태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참여의 사례를 다음의 그림과 같은 분석틀 속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청소년참여 형태를 도출하고자 한다.

### (1) 청소년 참여의 분석틀

청소년참여는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그것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참여의 형태를 취하는지에 따라 정부주도와 비정부기관 주도의 참여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물론 명확하게 정부주도 혹은 비정부기관 주도의 청소년참여의 형태를 구분 짓는 것은 비록 그 참여가 소극적인 의미이건 적극적인 의미건 간에 근본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청소년참여는 그 구체적 활동에 있어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 일정 부분 정부기관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청소년 참여활동의 형

태를 정부주도 혹은 비정부기관 주도로 구분해 내기란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형태에 있어 자율성과 개방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정부주도와 비정부기관의 주도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



### <그림 2> 청소년참여 형태의 분석 틀

또한 청소년 참여의 사례는 참여활동과 조직구성,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제도화된 형태와 비제도화된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제도권 내에서 단체로 조직되고 조직화된 구성원에 의해 단체가 운영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참여 활동을 전개하는 청소년 참여사례는 제도화된 참여의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조직화된 구성원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참여활동도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비제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참여사례는 비제도화된 청소년참여활동의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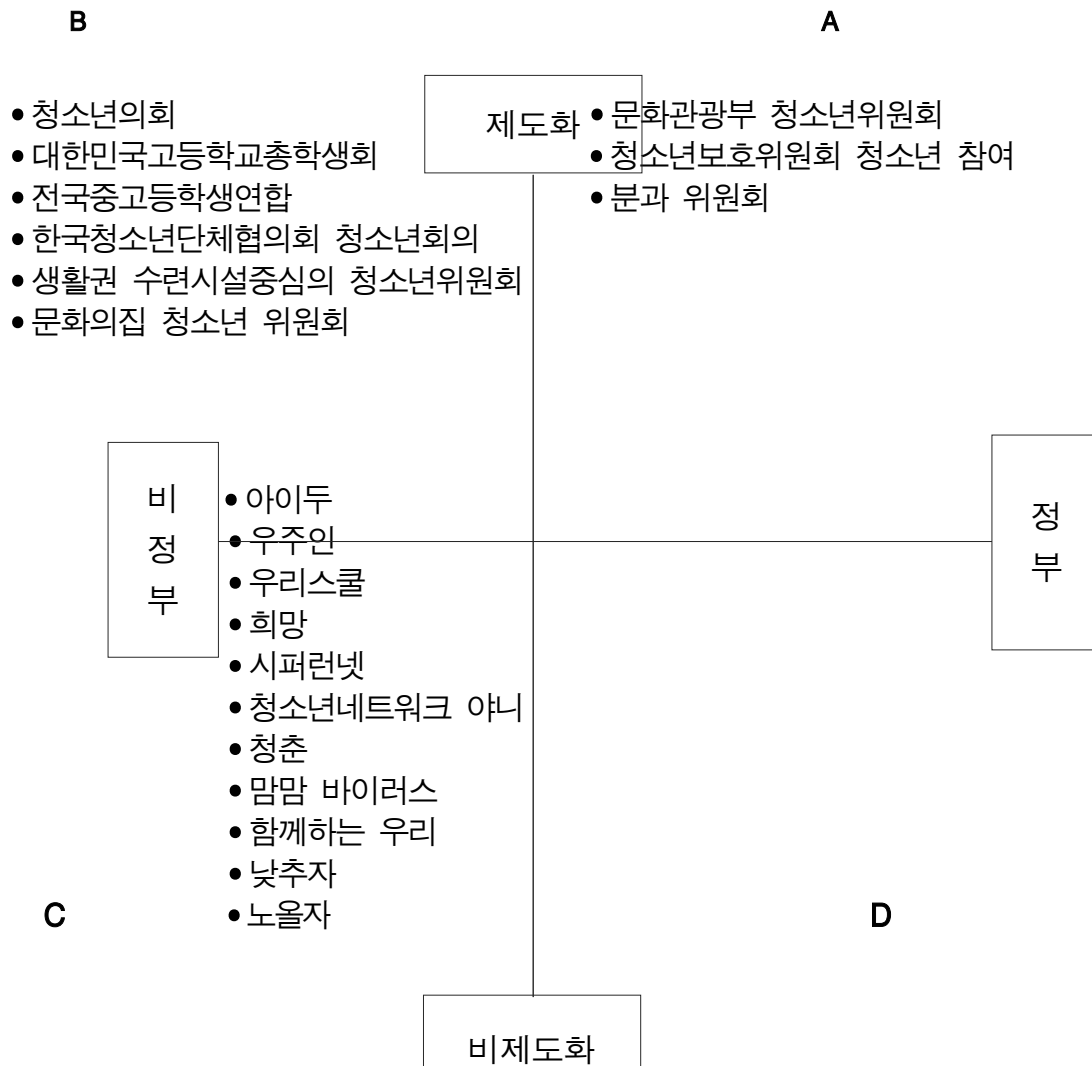


일례로 토렌스 청소년 위원회는 시에 의해 조직되었고, 위원회는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대표 8명, 토렌스 시에 속해 있는 EI Camino Community College에서 선발된 2명, 그리고 그 외 청소년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물론,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선발관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도화된 참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위원회의 활동은 기존의 시정부 위원회와 똑같은 지위를 부여 받은 공식적인 자문 단체로서의 권한을 지님으로써 청소년 참여의 활동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고교생 주장대회는 고교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참여활동의 사례로 주장대회에 응모한 모든 청소년들이 매 대회의 구성원이 되면 이들은 전원 스텝으로 활동하게 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하는 점에서 비제도화된 청소년참여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참여활동 또한 자신의 가치관을 연극, 음악, 혹은 수화라고 하는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참여활동에 있어 상당히 비제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3) 한국의 청소년참여 형태 분류

우리나라는 제2차 청소년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부터 청소년 참여활동이 증가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참여활동을 <그림 2>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로 분류하면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분류 될 수 있다.



**<그림 3> 한국의 청소년참여 형태별 분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참여는 대부분 비정부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화된 참여형태가 비제도화된 참여보다 비교적 많다고 하는 사실이다. 다만 정부주도형의 비제도화된 청소년참여의 기회가 거의 전무하다고 하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청소년 참여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참여증진 정책은 D 분면에 위치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 형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V.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 1.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청소년활동은 사회활동의 하나로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근본이며 청소년 활동의 발전은 곧 지역사회의 발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이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프로그램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청소년 활동과 지역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의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가정이나 학교에서 얻기 어려운 체험학습의 습득이 가능해진다. 즉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집단과의 교류를 빈번하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원 활동의 동기유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역사회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안목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 연대, 책임, 규율, 행동력과 같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사회활동을 보면 대도시중심, 중앙중심, 학교중심으로 진행되거나 조직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그 활동 내용도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정도의 일부분에 국한되거나 시범적인 형태로만 진행됨으로써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나 기관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삶을 보다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해주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가치 있는 여가활

동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활동의 참여를 통해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마음에 공동체 의식을 심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여가선용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표 5> 충남지역 학교현황(충청남도 교육청: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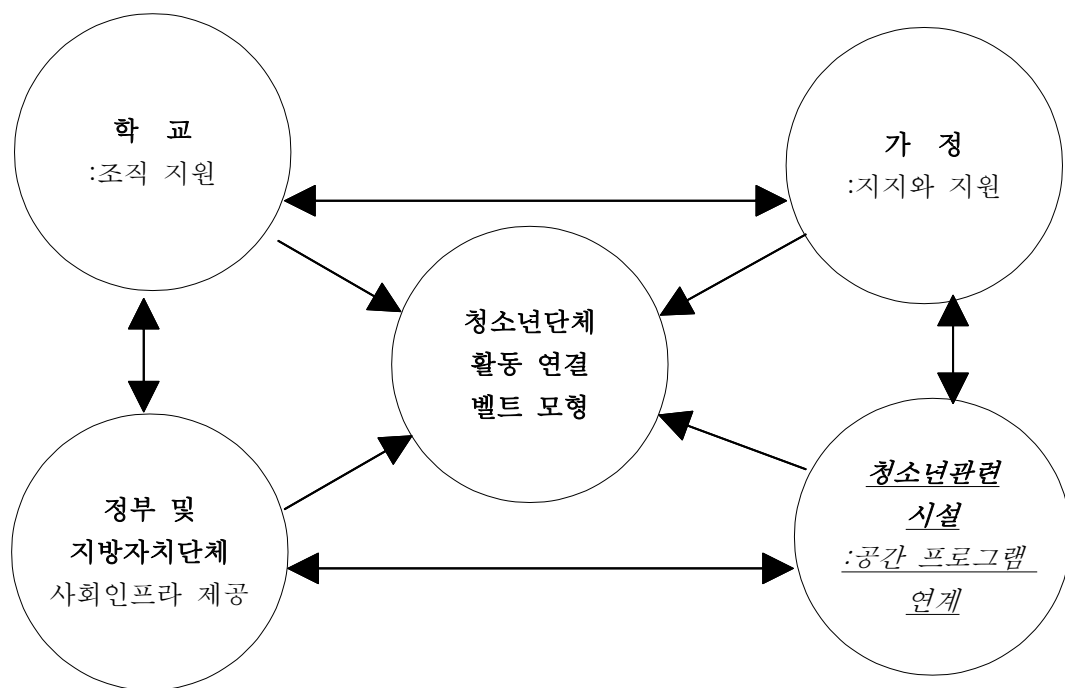
학교급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547	20,714	1,224
초등학교	431	156,390	7,463
중 학 교	189	71,453	4,410
고등학교	109	70,439	5,006
특수학교	5	839	170
고등기술학교	1	78	12
계	1,282	319,913	18,283

**<표 6> 충남지역 학교 중점시책**

중점시책	구현중점
1. 효행을 근본으로 하는 바른 인성함양	1. 효행의 생활화
	2. 문화시민 생활태도 확립
	3.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4.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중시'풍토조성의 생활지도
	5. 화해 협력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2. 기초·기본교육의 충실을 통한 학력증진	1. 기초·기본 학력을 다지는 교육
	2.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
	3. 유아·특수교육의 질 제고
	4. 창의력을 높이는 교실수업
	5.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제 이해 교육
3.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	1. 기초과학교육 충실
	2. 정보화교육 활성화
	3.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4. 직업기초·기술교육의 경쟁력 강화
	5. 평생학습 기회 확대
4. 보람과 신뢰가 충만한 교직사회 실현	1. 교원 전문성 신장
	2.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원인산
	3.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4. 범사회적 교권 존중 풍토 조성
5.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여건 조성	1.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2. 자율·책임·참여의 학교문화 조성
	3. 학생건강과 복지 증진
	4. 현장지원 중심 교육행정 정착

## 2) 지역기반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와 시설의 활동연결고리 형성을 통한 벨트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단체활동 연결벨트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주5일 수업제의 시행 등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을 이용해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 연결고리 형성을 통한 단체들이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청소년 단체활동 연결 벨트 모형’ 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4> 청소년단체활동 연결벨트 모형

청소년단체활동 연결벨트 모형의 주요 요소로는 학교, 가정,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관련시설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 연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4가지 요소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학교의 조직과 시설지원과

가정의 지지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및 사회적 인프라 형성, 그리고 청소년관련 시설과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공간과 프로그램, 전문지도 인력 등을 연계함으로써 하나의 종합적 지원 체계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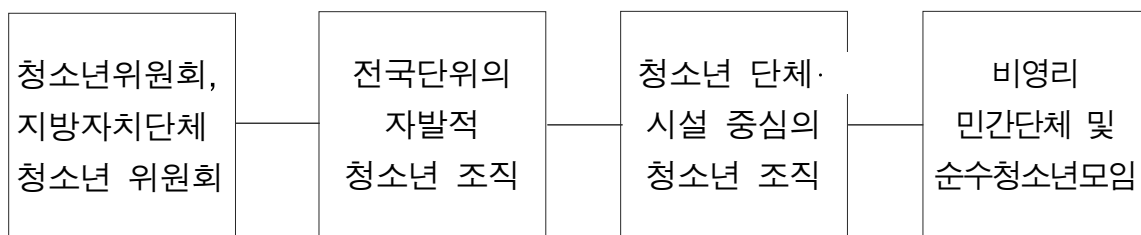
**<표 7> 충남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개소	5(1)*	7	6(4)	8(1)	6(3)

자료 : 충청남도 체육청소년과(2003) ,\*( )는 시설중.

### 3) 청소년참여 조직의 연계방안

각 단체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활동하는 참여조직들을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발제한 전국적인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 청소년 조직과 활동의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각 활동주체들의 운영을 좀 더 확대시키고 연계시켜 공식적 지원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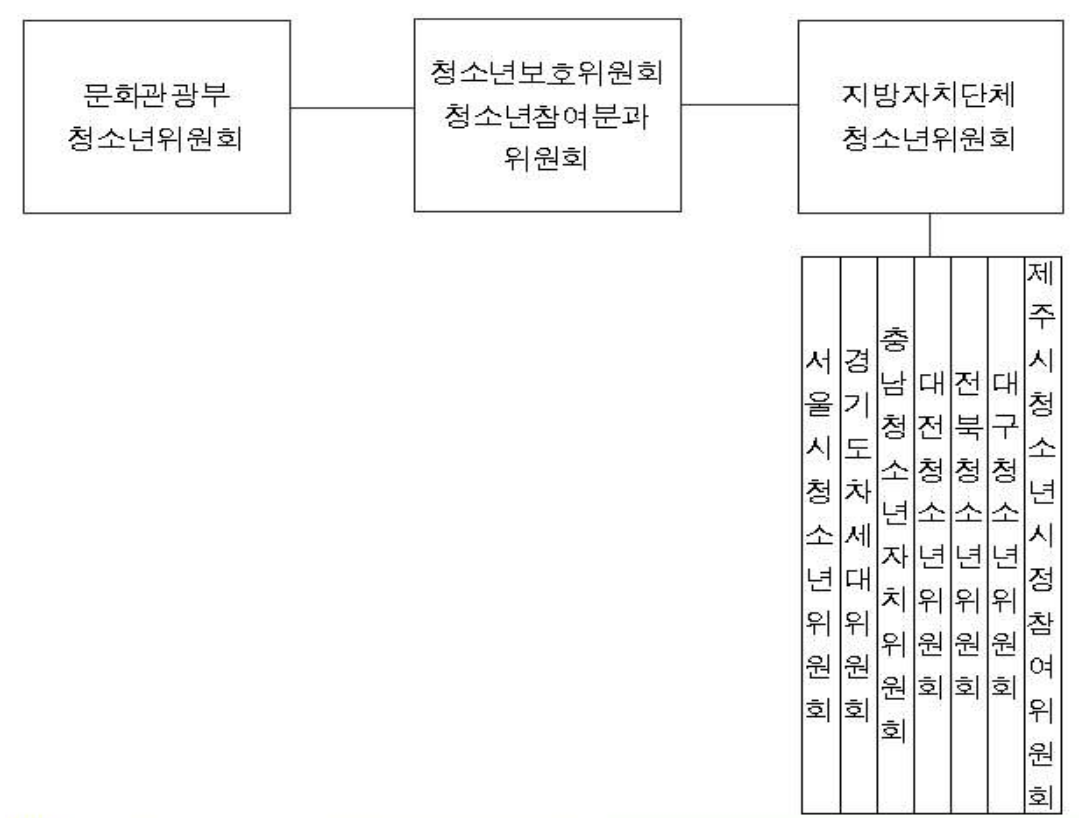
**<그림 5> 청소년참여 조직의 현황**

현재 청소년 참여조직의 현황은 청소년위원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식적으로 조직·구성된 청소년위원회와 전국단위의 자발적 청소년조직,

청소년단체 및 시설중심의 청소년 조직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리된 선행문헌이나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내실 있게 활동하는 많은 청소년조직의 모든 현황들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1) 국무총리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위원회의 연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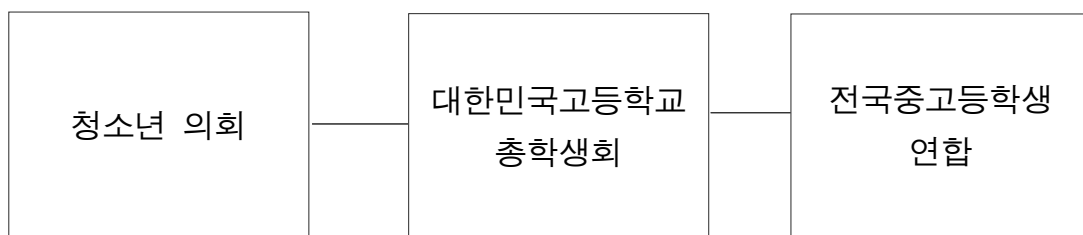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지방단체의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식적 조직이나 활동내용이나 지원현황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수동적 조직이 아닌 나름대로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키워가며 스스로의 비전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관심과 여건 등에 따라 운영지원의 실태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국무총리·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위원회의 현황

## (2) 전국단위의 청소년 조직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 전국단위의 청소년조직은 청소년 의회와 대한민국고등학교총학생회 등의 공식적 활동조직을 포함하여, 온라인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과 같은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인 청소년 활동모임(청소년 웹진 등)과 오프라인 상의 소규모 청소년들의 임의적이고 자발적인 모임과 자치조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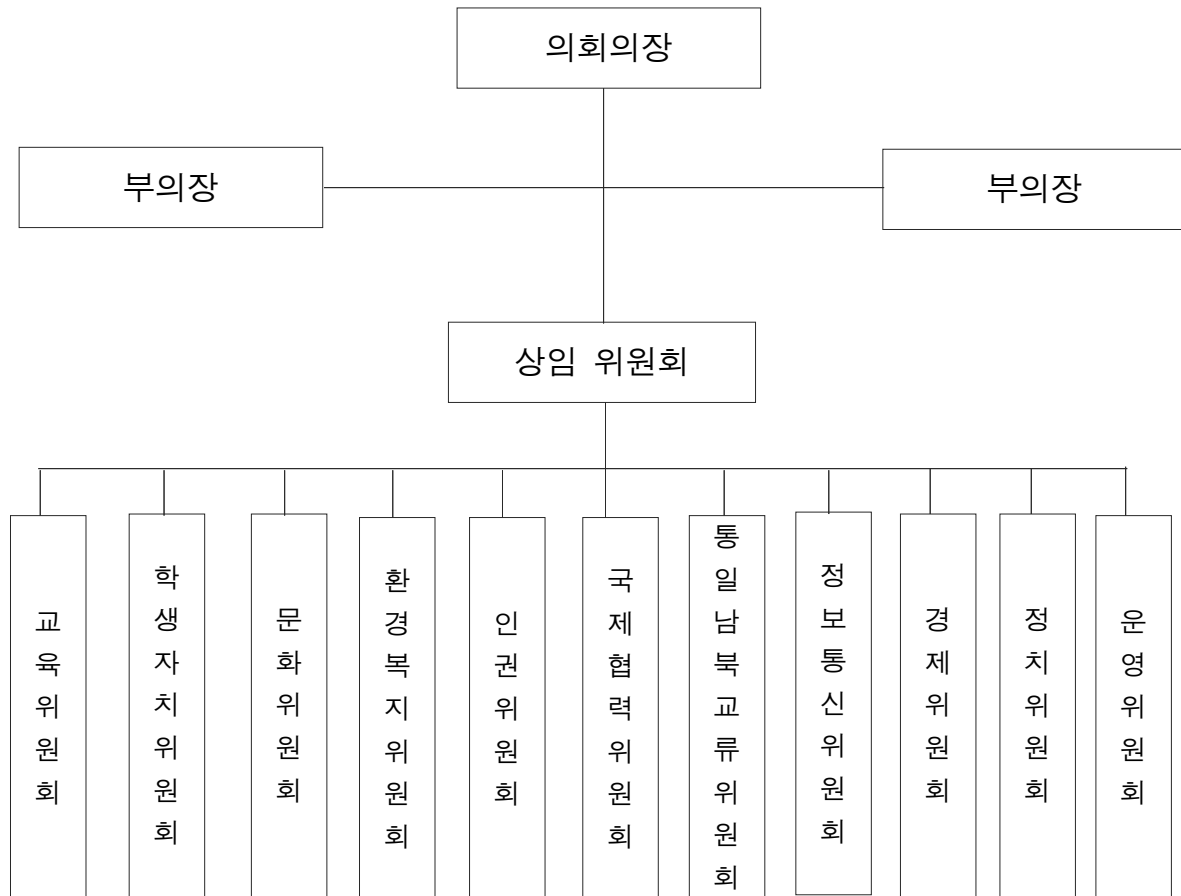


<그림 7> 전국단위의 자발적 청소년 조직

## (3) 청소년 의회의 연계망

청소년의회는 전국사회교사모임, 정의교육시민연합, 홍사단교육운동본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5개 단체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청소년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에 적합한 청소년의회의 모델을 만들고, 청소년의회의 제도화에 대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출발한 청소년의회의 모델을 만들고, 청소년의회의 제도화에 대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출발한 청소년의회는 현재 전국 2만5천여 명의 자발적인 청소년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그 위상을 세워 가고 있는 중이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의정활동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그림 8> 청소년 의회의 연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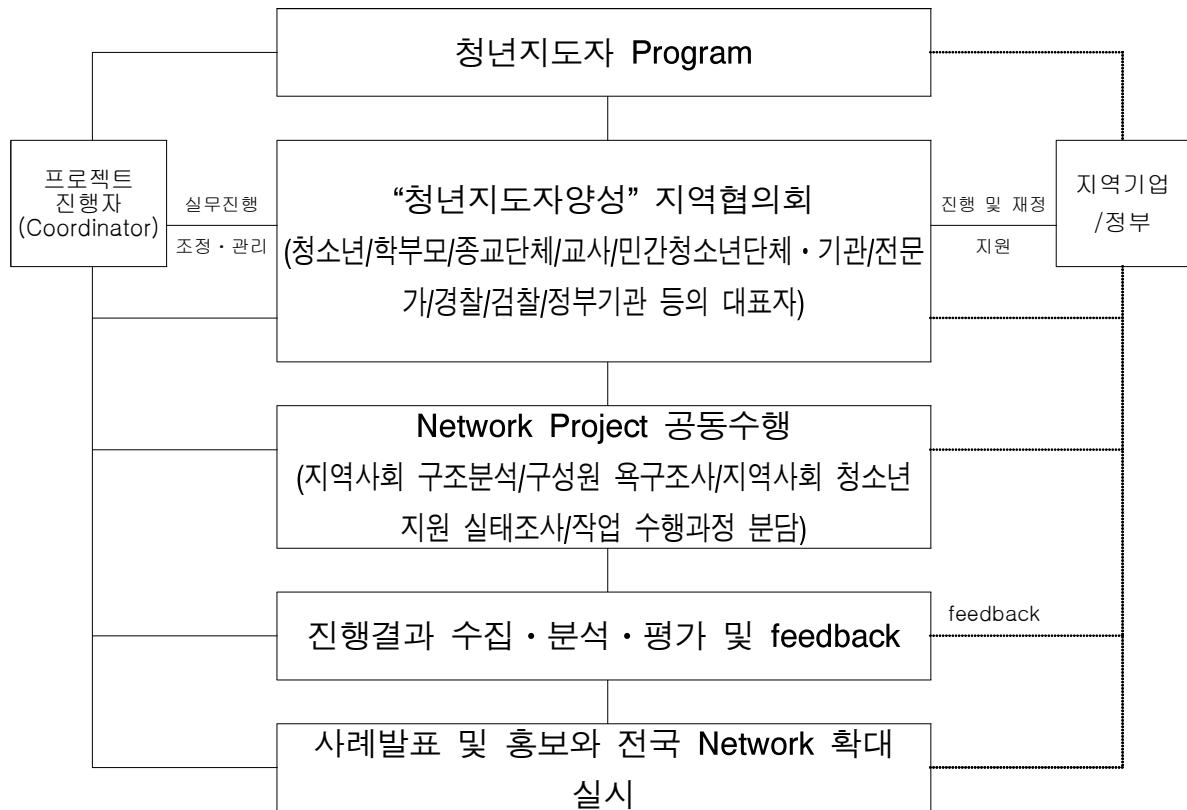
청소년의회의 조직현황은 의회의장을 대표로 하여 그 아래 부회장 2인과 상임위원회를 두고 다시 교육위원회, 학생자치위원회 등 11개 분과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이제 시작하는 청소년조직이지만 참여 회원의 수나 활동의 체계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가능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해 정치에 대한 청소년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자발적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는 사회적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자발적 전국조직이며 민주적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에 참여할 경우 의제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많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또한 아직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이 미약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를 통하여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인할 수도 있다.

## VI. 맺 음 말

오늘날의 우리 지역사회는 급격한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사회해체적 성격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도시문제는 지역사회해체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문제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내의 청소년문제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육성의 과제는 기성세대와 전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기능회복을 통한 공동체 확립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 중심에 지금의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대비하고 능력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나라에서도 보편화 되어 지역공동체 교육운동을 통하여 건설한 민주시민사회를 구축한 예를 보면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 캐나다의 농촌라디오 토론회운동, 일본의 공민관을 통한 교육운동, 서독의 국민고등학교, 미국의 지역사회학교운동 등은 잘 알려진 지역공동체운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단순한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지역사회조직, 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은 간과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청소년기관, 단체들은 해당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한 지역중심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결여로 많은 인력 및 자원의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원과 서비스 운용의 구심점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청소년기관과 단체들을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조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지도자 육성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제반 사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9> 지역사회 네트워크 ‘컴넷’(ComNet) 체계도**

복지사회의 확립은 지역사회가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갈 때 가능하다.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지도자의 지원확보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면서 자라기 쉬운 젊은이들이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활동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충남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언을 끝으로 논의를 마친다.

## 1.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초기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

충청남도과 시·군은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초기

형성단계에 바람직한 인적·물적 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홍보와 각 지역사회 자원들의 참여 및 연계, 사전 준비모임의 주선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조사나 여러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등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2. 네트워크 전담 운영자(coordinator)의 투입 및 재정지원

충청남도는 네트워크 초기 형성단계 과정과 프로그램 관련 지역사회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그리고 네트워크의 핵심 본부인 네트워크협의회 각 구성원의 연계·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 등 네트워크 운영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로서 총괄책임을 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전담운영자(coordinator)를 반드시 네트워크 내에 두어야 한다.

만약, 상근 인력으로 투입하기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면 지역사회 내 전문적인 유관기관에게 위탁을 주어 그 기관의 기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과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자치단체 장의 지속적 참여 제도화

지방자치 단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자치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초기 형성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협의회장의 장의 역할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매번 참석하기 어려울 시를 대비하여 관련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스스로와 지역구성원들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 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민간부문의 각 자원들 즉, 변호사, 의사, 교사, 종교인, 기업인,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기타 청소년지도 관련 지역사회 유희 자원인력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형성단계에 지역구성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및 코디네이터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동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열거한 민간부문들 가운데 중·고교와 지역의 대학 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는 자세와 협력의지를 가지고 시설과 전문가들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형성과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5. 핵심본부인 네트워크협의회에의 신중한 구성 및 역할과 책임 명문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질적 핵심본부(headquarter)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협의회'의 구성은 향후 네트워크의 운영을 직접 주도하고 모든 사업을 결정하므로 신중히 구성원들을 선별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자치적 운영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뚜렷한 역할과 책임을 조례나 협의회 규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네트워크협의회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중지를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자치단체 장은 네트워크 형성단계를 제외하고는 주로 협의회 밖에서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협의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코디네이터가 조정하고 화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네트워크 운영결과 분석·평가 및 feedback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결과는 분석 및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그 결과가 환류(feedback)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및 시·군은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최종작업인 사례발표와 전국적 홍보 그리고 과정을 수료한 청년지도자들의 지역개발참여 네트워크 확산의 사전 작업 의미가 있으므로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전문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에 모든 가능한 지원을 통해 도와야 그동안의 노력이 효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 7. 네트워크 운영결과 사례발표와 홍보 및 모델의 전국 확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문제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운영결과에 대한 사례발표와 모델사례 발굴 및 홍보와 전국 network 확대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정책적인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와 같은 중앙차원의 관련 사업이나 타 자치단체와의 프로그램 협력 사례 발표회를 갖고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충청남도에 적합한 지역지도자 개발모델을 전국에 보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8. 법제도 제정 및 개선을 통한 네트워크 지원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자나 기관이 청소년폭력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사나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등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제반 여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제정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곽준규·구만호(200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과 자아개념 및 내외 통제 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5). 열린 세상 푸른 청소년 2005.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김병숙외 4(1997) 진로지도와 직업안정의 체계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봉환(1996)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맹영임(1999) 청소년 진로의식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성희, 전명기, 맹영임(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한국청소년개발원
- 백성준(2003).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의 육성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재관외(2003). 참여형 지역복지체계론. 서울: 나눔의 집
- 이광호(1999). 신지식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개발. 서울: 청소년개발원
- 이광호(2000) 청소년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민희(200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대책연구, 연구보고 03-R10,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지연(1998)한국인 진로유형에 따른 진로교육 모형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명희(1999) 실업계고교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을 위한 운영체제 및 교육과정 모형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1995)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2002) 학교진로교육의 실천 방향,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진미석(1999) 실업계 여학생 진로·직업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1999) 일반계 여자 고등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1999) 대안적교육운동으로서 진로교육의 재음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지웅, 임상봉(1999). 지역사회개발학. 서울: 서울대출판부

청협(2004). 새 시대 청소년운동의 방향.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협(2005).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지침서.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협(2003) 청소년 참여와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 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청협(2004).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2001) 충남지역청소년의 학교폭력, 충남;충청남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2004) 천안시 청소년의 진로 인식에 대한 실태조  
사, 충남;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2005) 지식 정보 산업시대의 직업세계변화와 진  
로선택 전략,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종합상담실

한국 4-H본부(2004). 2004 농어촌청소년백서. 한국 4-H 본부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외국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문화관광부



제3주제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

김 언 주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

김 언 주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교육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

## 목 차

1. 영재교육의 목적
2. 영재교육의 시행(계획안)
3. 영재육성을 위한 10대 전략

## 영재교육의 목적

1.국가목적

2.개인목적

### 국가 목적 : 인재 양성





## 2~3만불 도전

	1992년 당 시	2002년 당시	비고
정주영	\$30억	\$25억	산업재 (産業財)
빌게이츠	\$30억	\$800억	정보재 (情報財)/ (new knowledge)



(2004년 : 1만 6000불 )

- 산업재: 철강, 조선, 자동차, 노동
- 정보재: 컴퓨터, 신약, 발명특허

개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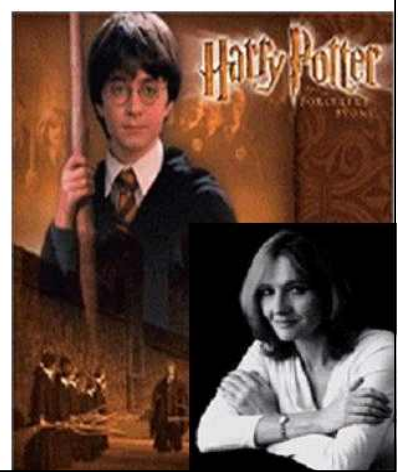
자  
아  
실  
현







## 자녀의 가능성 실현은 ?



### 교육부 vs. 충남

#### ● 국가(혹은 교육청) 목적

- ◆ 교육부: 국가 고급인적자원의 조기발굴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 충남: 창의적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교육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회의자료.  
충청남도 교육청(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

## 교육부 vs. 충남

### ● 개인 목적

- ◆ 교육부: 개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능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도모
- ◆ 충남: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 충족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회의자료.  
충청남도 교육청(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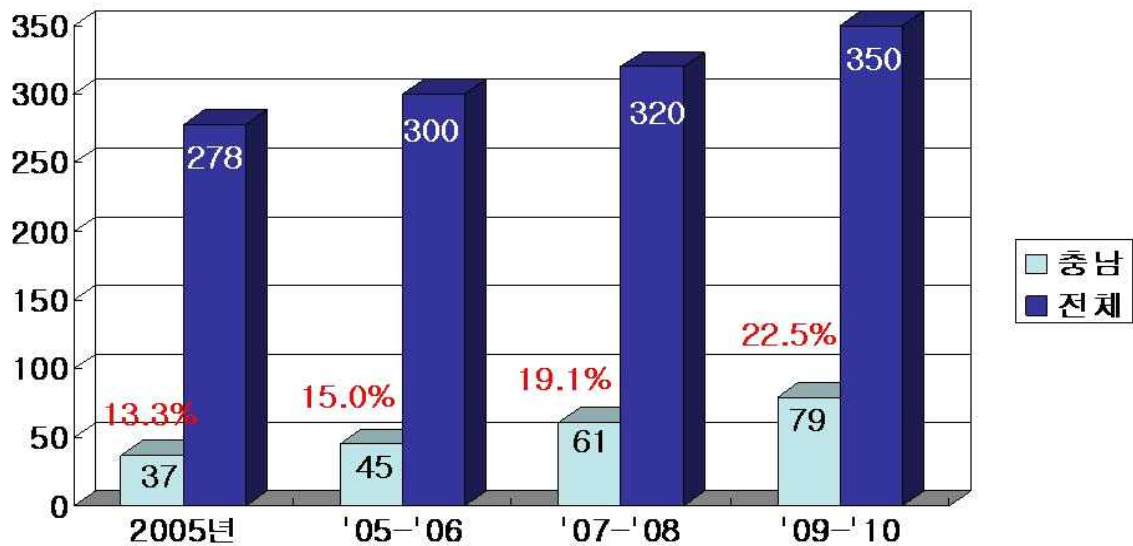
## 영재교육의 시행(계획안)

##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설치 현황 및 계획

		2005년	'05-'06	'07-'08	'09-'10	비고
영재 학교		1(과학)	1(과학)	1(예술)	1(정보)	3개교
영재 학급	전체	278	300	320	350	
	충남	37 13.3%	45 15.0%	61 19.1%	79 22.5%	
영재 교육원	전체	213	200	230	250	
	충남	31 14.5%	39 19.5%	55 23.9%	71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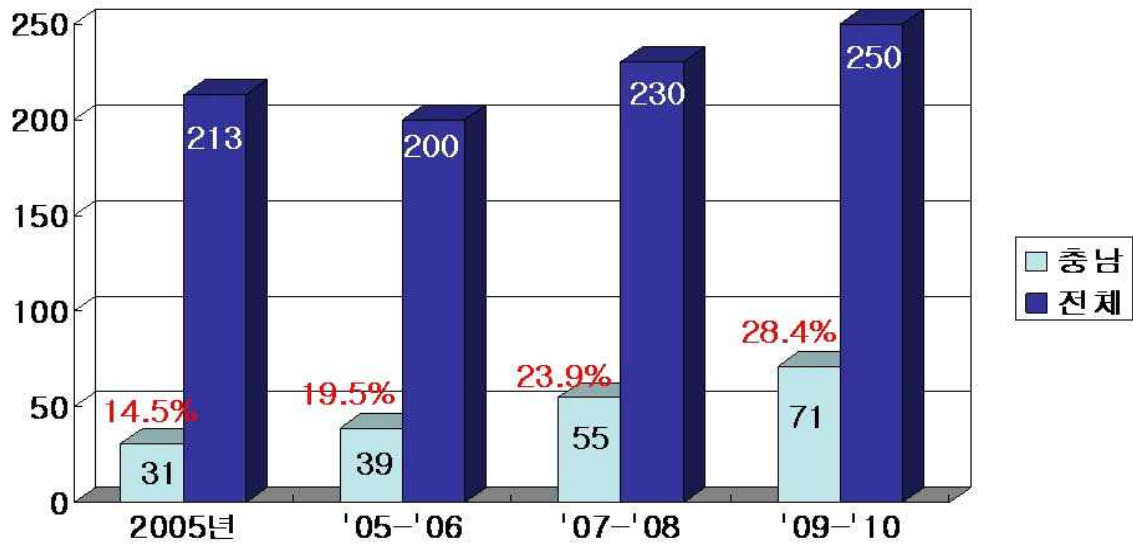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회의자료.  
충청남도 교육청(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

## 영 재 학 급 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회의자료.  
충청남도 교육청(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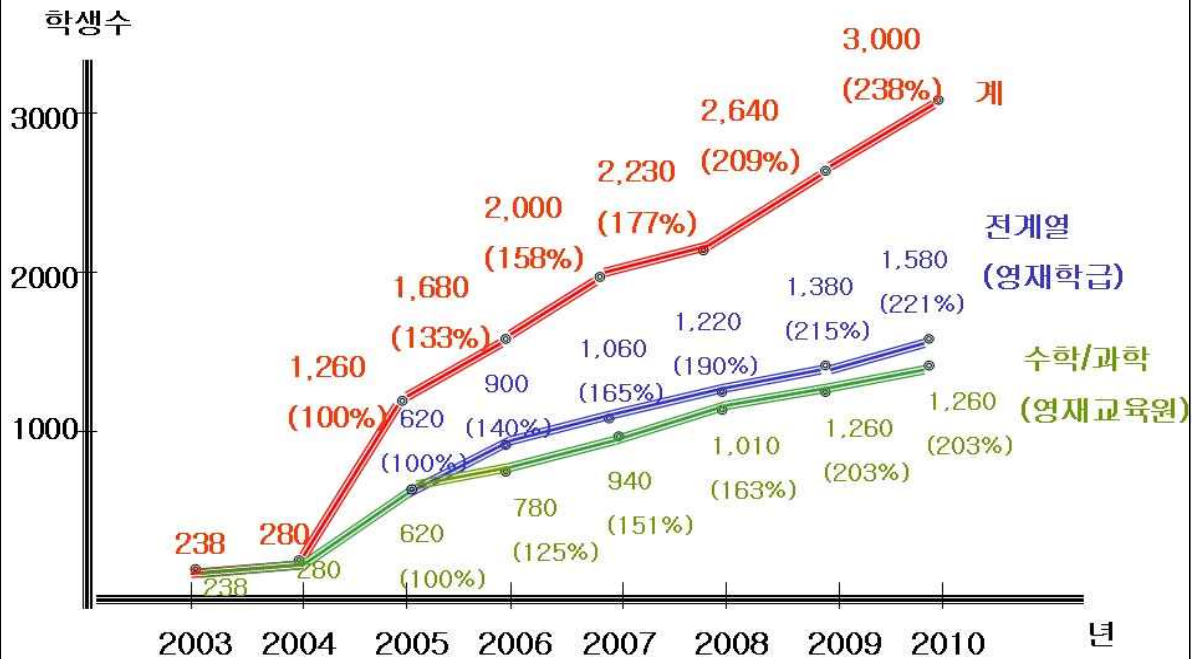
## 영재교육원 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5),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회의자료.  
충청남도 교육청(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

## 영재교육 대상자 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자료: 충청남도 교육청(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





## 영 재 교 육 비

자료: 충청남도 교육청(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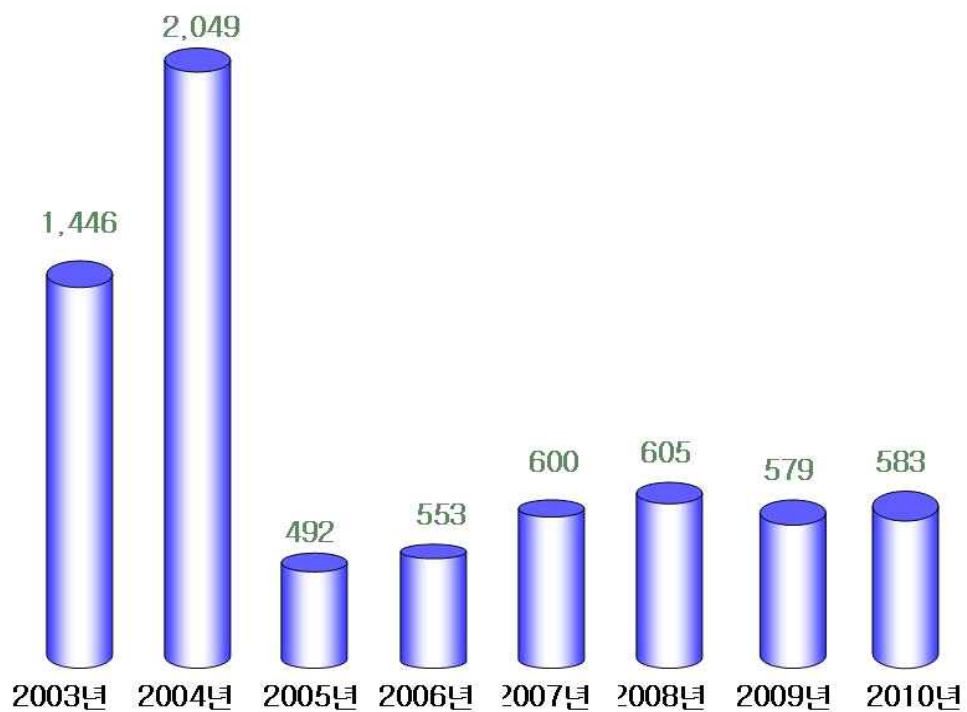
충청남도 영재교육 수혜 학생수



충청남도 영재 교육비(단위:천원)



충청남도 1 인당 영재 교육비(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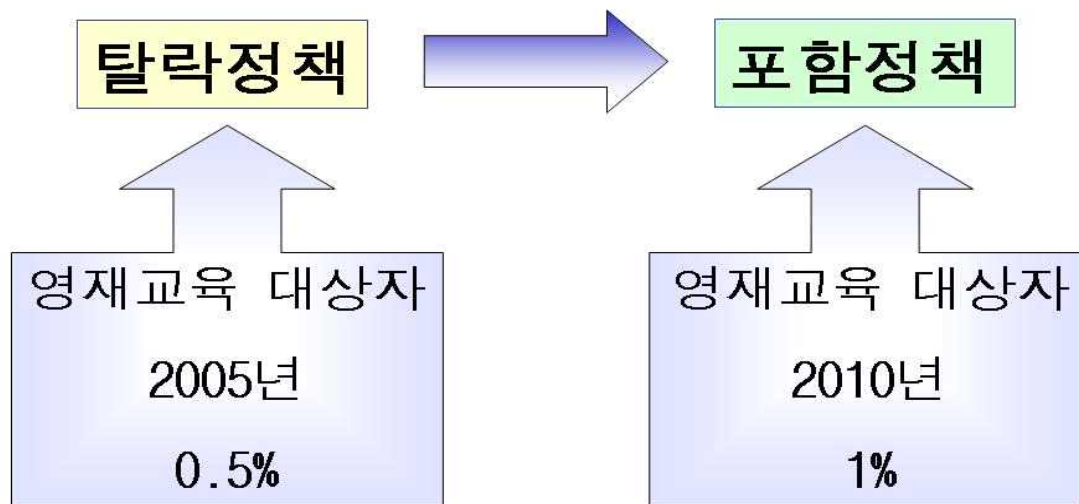
## 2005년도 영재교사 연수현황

- 충청남도: 216명  
(기 연수: 96명 2005년 120명)
- 교사 1인당 영재학생수: **약 6명**  
(1,260 영재학생/영재교육 연수교사216명)

“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양질의 영재교육을 ”

**영재육성을 위한 10대 전략**

## 전략 1. 영재교육 정책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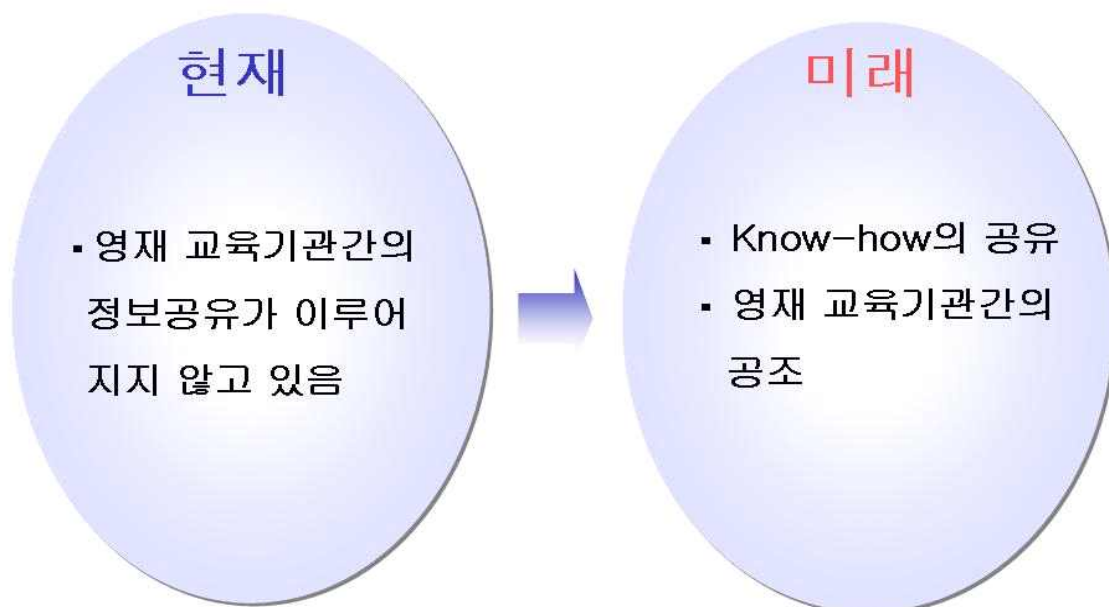
## 전략 2. 영재교육 주체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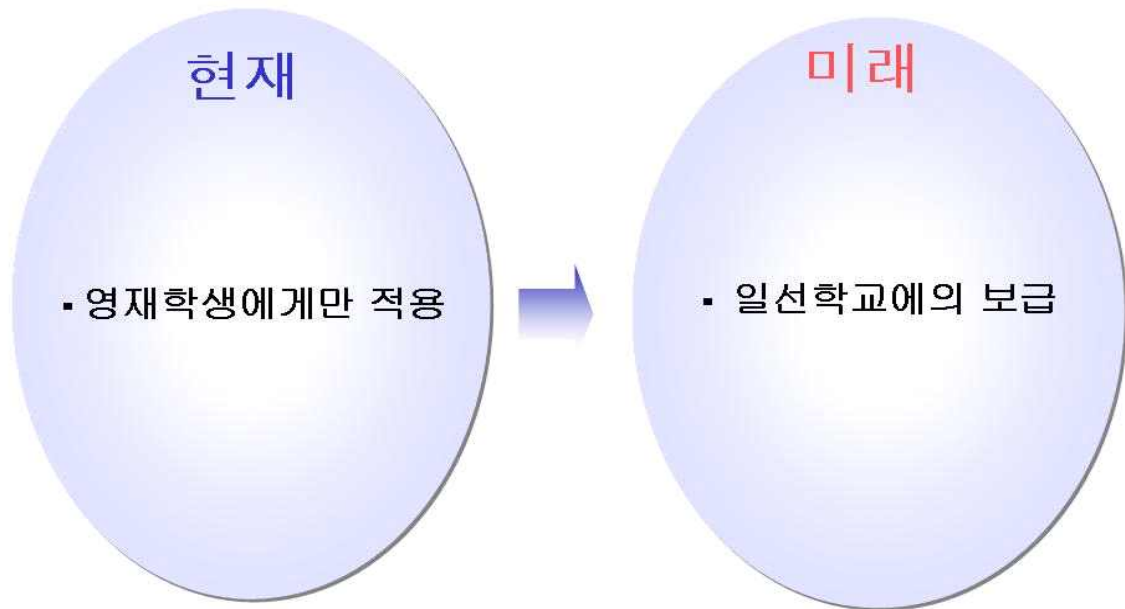
### 전략 3. 영재교육비 재원의 다양화



### 전략 4. 영재교육관련 'know-how'의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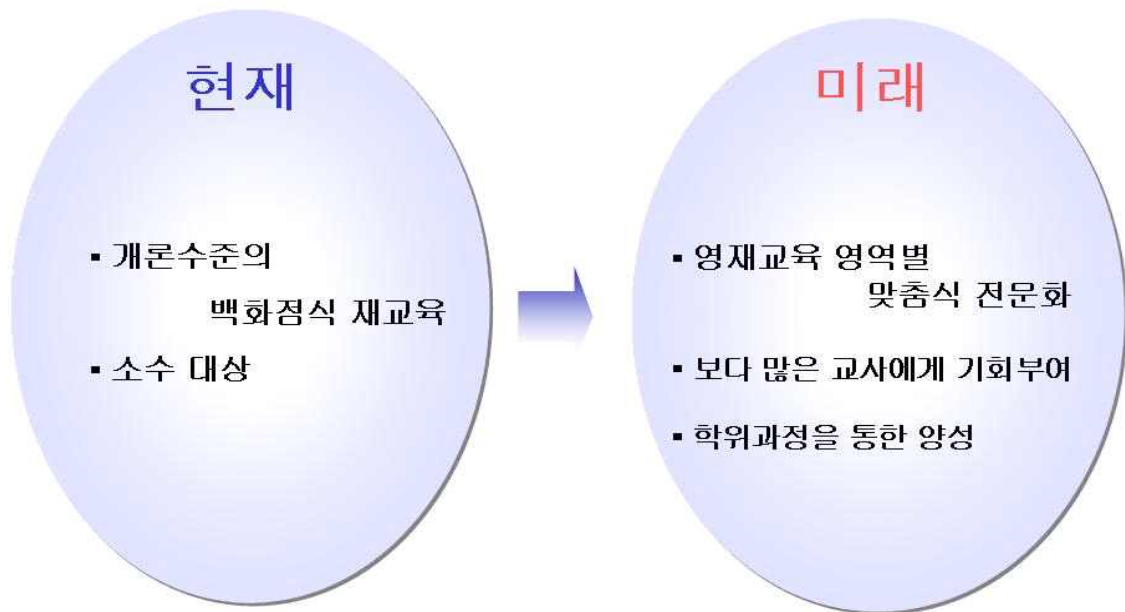
## 전략 5. 영재 교수법의 일반화



## 전략 6. 영재 교육 주체의 역할 전문화



## 전략 7. 영재 교사 연수의 맞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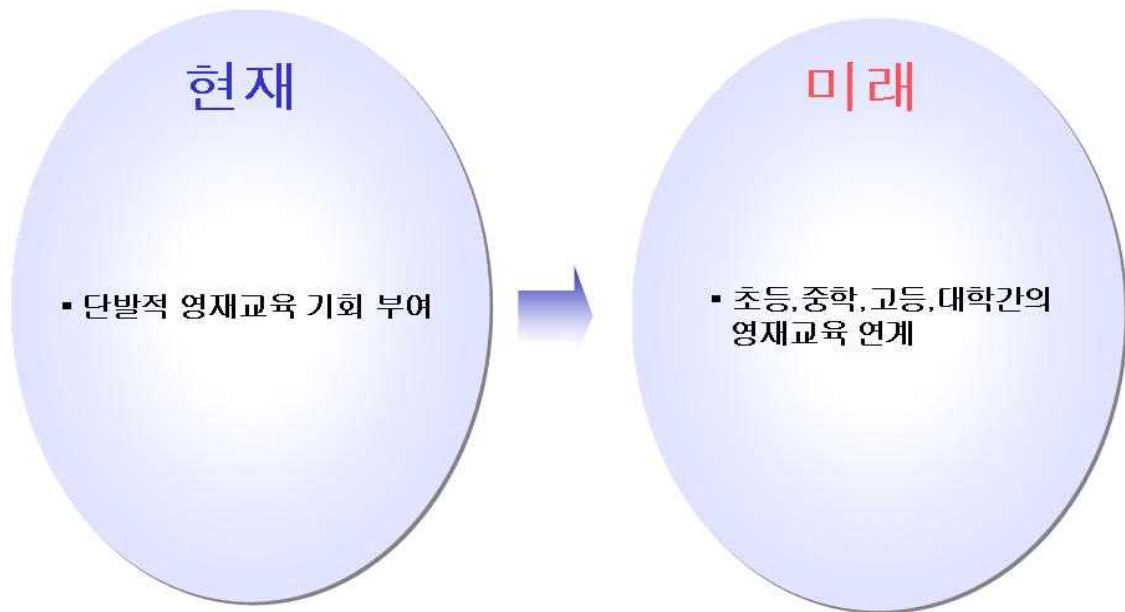


## 전략 8. 영재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가칭 “Human Resource Networking(HRN)” 구축
2. 가칭 “New Frontier Community(NFC)” 구축
3. 가칭 “Gifted Education & Culture Education(GECE)” 계획 수립
4. 가칭 “Central-Local Educational Government Cooperation Program(CEGCP)” 개발



## 전략 9. 영재 교육의 상급학교와의 연계교육의 강화



## 전략 10. 영재교육 성과의 종단적 평가

### • Follow-up study:

- 영재교육 받은 학생들에 관한 DB 구축
- 진로 및 발달과정 추적



## 토 론 요 지

### ◎ 제1주제 토론

김종철(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

### ◎ 제2주제 토론

박현식(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 ◎ 제3주제 토론

하주현(건양대학교 초등특수학과 교수)

## 제1주제 토론요지

# 충남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방안 토론

김 종 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팀장)

별도로 인쇄하여 드리겠습니다.

## 제2주제 토론요지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을 위한 전제 조건

박 현 식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우리사회의 문제는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현대화,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비단 청소년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권경주 교수님의 논문에서 지역청소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획일화된 문화와 입시위주의 청소년문제에서 지방(농촌지역)청소년 상황의 인식 속에 대안 제시에 큰 의미를 둔다.

청소년의 문제는 정보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가치혼란으로 인해 정체성의 문제는 미래사회의 전망을 불투명, 불안하게 예견케 한다.

우리나라의 획일화된 문화 환경속에 지역적 차이로 인해 청소년 스스로 사회와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이질감, 소외를 갖게 해 주는 현상을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역적인 상황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재와 입시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청소년 스스로의

의사결정구조, 의사전달로 인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해 봐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위원회의 대책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집행기관으로의 역할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해결의 방안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배양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었는데 현재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청소년문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이러함의 원인은 지방정부가 당면한 한계로 재정분권화로 인한 예산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두 번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기관의 중복성과 프로그램 집행기관 또한 중복되고 있음으로 자원 낭비와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갖게 한다. 이러한 한계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나타난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결벨트모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학교임으로 교육적 입장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청소년의 문제를 비행, 탈선의 사회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정책결정, 집행기관의 혼란은 더욱 심각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다양한 자원의 참여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의 방향을 세 가지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측면이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접근해야하는 지역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화사회문제중 하나는 농촌지역의 현상이다. 그중 특이한 현상중 하나가 조손가정이 도심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안정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문화 환경의 부족이다. 이는 언론 및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문화와 지역 내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내에 청소년들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만한 충분한 공간, 시간의 부족이다.

둘째, 공급자원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청소년 문제의

접근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는 교육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역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는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복지관, NGO등 자원네트워크를 통한 인프라구축의 요구된다. 재정분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부족은 사회복지축소, 위기현상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요구로 공급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생산적형태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도 복지적 측면으로의 접근을 위해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공급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자율성의 측면이다. 청소년 문제를 위한 실행기관의 자율성과 청소년 스스로 참여,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실행기관의 지원과 집행의 역할분담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문제이다. 자원의 공급기관으로 인해 집행기관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문제는 이러함에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은 요청 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청소년 지도자양성을 권 경주 교수님이 밝히고 있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지방의 상황과 자원의 공급, 참여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제3주제 토론요지

#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을 부치며

하 주 현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우수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영재의 지적 능력과 재능을 계발시킴으로써 그들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공헌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한 사람의 인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수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재 선발 및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재 교육 또는 수월성 교육에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15%의 학생에게, 영국은 5~10%, 싱가포르 1%, 호주는 1%, 이스라엘 3%, 대만 1%, 러시아 1%의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대상 학생은 04년도 기준으로 0.3%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00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고 난 후 2002년도에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영재교육을 포함하여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으며, 2010년까지 전체 5%의 학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 지역마다 미래인재 양성에 주력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목고를 육성하여, 이들이 후에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남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제 모색을 하는 이 자리가 매우 뜻 깊고 의미 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 언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론자는 김 언주 교수님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본 논문을 읽고 토론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영재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을 담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관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영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창의적 생산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고 도덕성을 함양한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최대로 계발한다.

이외에도 영재교육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목표를 종합해 보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신장,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태도 함양, 도덕성 · 사회성 · 지도력의 계발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에의 공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이는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목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영재교육에 있어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자기력의 계발이 더 많은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영재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교육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둘째,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를 충족한다.

충청남도의 교육목표가 국가적 영재교육의 목표와 차이점이 있다면 창의

적 과학영재를 양성하는 데 특화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때 과학영재에 한정해 교육의 목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군들이 충남에서 배출되어야 지역의 발전이 소홀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영재만이 아니라 인문영재의 양성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꼭 필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 2. 영재교육의 시행 및 운영계획

<표 1> 충남 영재교육 추진계획 총괄표(2005)

구 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강사수	연수인원	대상학생	개설과목	운영예산
2005 계획	학급	3	37	640	150	-	초.중.고	전계열	620,380,000원
	원	8	31	620	127	120	초.중	수학.과학	
	대학	1	24	260	50	-	초.중.고	수,과,정보	
	계	12	92	1,520	327	120	초.중.고	-	
2003 실적		4원	13	238	60	29	초.중.고	수.과.정보	344,198,000원
2004 실적		4원	14	280	60	41	초.중	수학.과학	573,841,000원

위의 표에 의하면, 학급 수준에서 영재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는 충남 전체 모두 3곳으로, 초, 중, 고 각 1개교씩이다. 또한 지역 교육청 소재 영재교육원은 모두 7곳으로, 천안교육청, 논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보령교육청, 부여교육청, 홍성교육청, 예산교육청 등이며 이외에 충남교육청 영재교육원으로 충남과학고가 있다. 대학수준의 영재교육원은 공주대학교에 있다. 그러므로 충남의 시군 지역분할을 미루어볼 때 아직까지도 영재교육선발 및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특히 영재선발에 대표적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 특목고의 경우, 04년도 기준을 전국적으로 모두 118개의 학교가 있으며, 충남에는 현재 충남과학고등학교 1개교만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예술고와 정보고 각각 1개교씩만 개소될 계획이 있어서, 영재학교의 수가 타도에 비해 현저히 적다. 보다



더 많은 영재학교를 개소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충남의 영재학교출신의 영재들은 충남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제 2의 고향이 되어 충남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3. 영재육성을 위한 전략

김언주 교수님이 제시하시는 “영재육성을 위한 10대 전략”은 충남의 영재교육에 꼭 필요한 제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현재 교육청과 공주대학교 영재교육원 주체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그 내용이나 대상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대학의 확대, 연구소, 기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의한 영재교육을 통하여 영재교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을 시행하는 주체 간에 역할 분담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각의 역할 분담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도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초·중·고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영재교사 연수를 실시하며, 연구소 및 연구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지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영재교육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재량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활동 시간, 또는 주말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시군별로 영재교육의 선발 및 교육이 모두 제공되지는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딴 지역의 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이나 주말에 영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시·도 교육청별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방학 중 영재교육 캠프가 확대되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영재교육의 영역을 과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언어, 창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또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배출된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은 곧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가 될 것이며, 이는 충남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영재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2002년에 마련된 “영재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준”에서는 창의력 교육이 영재교육의 지향해야할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충남의 영재교육은 창의력 교육보다는 교과 중심의, 특히 수학 및 과학 분야에만 치중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 사고는 서로 다른 내용 영역이나 지식 영역의 틈새에서 생기거나 어떤 것을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 생긴다.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미래의 인재들에게 무엇보다도 통합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계발케 하는 창의력 교육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의 성공 여부는 수행하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교사는 성공적으로 영재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테크닉, 그리고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김홍원, 2002).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에 의하면,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는 국내연수와 국외연수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국내연수의 경우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국외 연수는 2005년도에는 계획에 있지 아니하다. 선진외국의 우수한 영재교육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이 분명한 데, 오히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지원 풍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수한 교원양성에 대한 행·재정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토론자에게 충남 영재교육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김 언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김홍원(2002). 21세기 창의력교육과 영재교육의 방향, 21세기 영재 및 창의력교육 학술세미나, 건양대학교 창의력개발연구소
- 충청남도 교육청(2005). 2005 영재교육 시행계획
- 교육인적자원부(2004).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2003). 영재교육학원론, 교육과학사